

 안전행정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
		담당자	연구관 박병철
	2013년 7월 9일(화) 조간 (7.8. 12:00 이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	연락처	02-2078-7850

강풍 불 때, 창문 아닌 창틀에 테이프 붙여야 안전
 - 국립재난안전연구원, 태풍 등 강풍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동영상 제작·배포 -

- 태풍 등 강풍이 불 때는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X자로 붙이는 것보다 창틀 등 가장자리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.
-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(원장 여운광)의 실험결과,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유리 보다는 새시(sash)의 성능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구원은 큰 태풍과 맞먹는 위력인 풍속 50m/s 강풍기를 이용해 유리창 파손 실험 등을 실시했다.
- 이번 실험은 유리창 파손 실험을 통해 기존 파손 예방법(젖은 신문지 또는 테이프 부착)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,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.
- 그 결과,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발생한 이격으로 유리창이 흔들려 발생하는 것으로 유리 자체 보다는 새시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젖은 신문지의 경우,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하고 테이프를 X자 형태로 붙이는 것도 큰 효과는 없었다. 특히, 유리창 새시 자체의 강도가 약하거나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이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예방법에 의한 파손 예방 효과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 - 따라서,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비규격·노후 창호는 즉시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 - 또한, 유리창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에 의해 인명·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<태풍 등 강풍대비 국민행동요령>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7월 10일부터 배포한다.
- 이번 동영상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만화 캐릭터를 등장시켜 제작되었으며 정부 기관을 비롯한 407개 기관에 배포되고,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.
 -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에서는 테이프를 창문틀이나 가장자리에 붙이는 요령 외에도 태풍 등 강풍에 대비하여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요령이 담겨 있다.

※ 강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주요 내용



[동영상 화면 캡처]

-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, 안전을 위해 집 안에 머무릅니다.
- 노후화된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.
-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와 새시가 일체화 되도록 부착하여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.
- 창문 새시와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높아지므로,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.
- 유리창 파손시 비산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에 비산방지용 안전필름을 붙입니다.

붙임 1

「강풍에 안전한 우리집」 동영상 주요 내용

-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대비책, 실제 실험 결과, 강풍대비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



<강풍에 대비하여 흔히 창문에 신문지,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짐>



<실험 결과, 실제 강풍에 유리가 깨지는 것은 오래되거나 낡은 창호로 인한 것임>



<강풍에 대비하기 위해 창틀 등에 올바르게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효과적임>

붙임 2 강풍대비 국민행동요령 개선(안)

-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, 안전을 위해 집 안에 머무릅니다.
- 노후화된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.
-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와 새시가 일체화 되도록 부착하여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.
- 창문 새시와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떨어져 있으면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높아지므로, 틈새가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.
- 유리창 파손시 비산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에 비산방지용 안전필름을 붙입니다.
- 간판 등과 같이 비래(飛來)할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.
- 옥상이나 집 주위의 빨래, 화분 등 작은 물건을 고정하거나 수납합니다.
- 바람에 의해 농약과 같은 “위험물”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
- 해안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.
- 라디오, TV, 인터넷, 스마트 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.



강풍이 몰아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

- 간판 등의 낙하물과 가로수 전도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,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대피 시에는 전도될 위험이 있는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합니다.
- 창문과 같은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합니다.
- 공사장과 같이 비래물이나 낙하물의 위험이 많은 곳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.
- 유리창이 깨지면 파편이 비산하니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위험하니 삼가 해야 합니다.
- 운전 중에는 속도를 줄여 강풍에 의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.
-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.
-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 등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119나 시·군·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.